백성현 논산시장, "논산을 한국의 '군수산업 메카'로 도약시킬 것"

등록 2022.10.20 11:25:10

2022 충남 국방산업 육성 포럼 참석…'논산시민 애국심에 국가가 응답할 때'

백성현 논산시장이 지난 19일 충남 국방산업 육성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2. 10. 20 논산시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백성현 논산시장이 “논산시를 대한민국 군수산업 메카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로 열린 ‘2022년 충남 국방산업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백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70여 년의 세월을 군과 함께 지내오며 크고 작은 피해를 감내해 온 논산시민에 대한 국가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군수산업은 나라의 힘과 흥망성쇠를 나타내는 가늠자인 동시에 미래과학을 선도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산업 분야”라며 “이웃 도시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논산시를 대한민국 굴지의 군수산업 메카로 도약시키는 데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농업기반의 도시였으나 국방 · 군수산업을 토대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낸 미국 앨라배마 주의 ‘헌츠빌’처럼 논산의 살 거리를 새로이 마련해 소멸의 도시에서 부흥의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면서 “그 중심에는 군수산업이 있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어 “국방 자원이 풍부하고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 논산이 군수산업 중심 정책대전환의 첨병이 되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면서 “육군훈련소의 총탄소리와 훈련병의 긴 행렬, 육군항공학교의 헬기 소음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온 논산시민의 애국심에 국가가 응답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 중심의 국방 혁신 방안을 모색하며, 미래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 발전 과제와 AI 기반 첨단전력 확보 체계에 대한 실효적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

특히,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로봇과 무인이동체 관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가며, 구체적인 활용 · 육성책 및 첨단 ICT클러스터 구축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